

# 이조년[李兆年]

## 난세에도 흔들림 없었던 강직함

1269(원종 10) ~ 1343(충혜왕 4)



### 1 개요

이조년(李兆年, 1269~1343)은 충렬왕(忠烈王)에서 충혜왕(忠惠王)에 이르는 4명의 국왕이 재위하는 동안 국왕의 비행을 규찰하고 왕조에 대하여 절의를 지킨 고려말 관료이다. 이조년이 활발하게 정계에서 활약하던 시기 고려에서는 원(元) 황실의 권력 향배에 따라 국왕이 교체되거나 국왕의 지위를 위협할 강력한 종실 인물이 대두하는 등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었다. 고려의 관료들 또한 개인의 이익에 따라 분열된 왕실 주위로 이합집산하며 수시로 국가의 존망을 좌지우지하는 형국이었으나, 이조년은 시류에 휩쓸리지 않은 채 전통적 질서와 덕목을 고수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고려의 위기를 막아내는 데 앞장섰다. 이로써 이조년은 고려 정계의 중심인물로 우뚝 서게 되었고, 이후 그의 가문은 고려말~조선초 역사의 중요한 장면 장면마다 굵직한 획을 그치게 된다.

### 2 가계와 입사과정

이조년의 자는 원로(元老)이고 시호는 문렬(文烈)이며 본관은 경산부(京山府) 용산리(龍山里), 즉 현재의 경북 성주이다. 그는 증조부 이돈문(李敦文), 조부 이득희(李得禧), 아버지 이장경(李長庚)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경산부 향리를 지낸 향리 가문 출신이었으나, 가업의 계승보다 학문에 뜻을 두어 17세에 향공진사가 되었으며 [관련사료](#) 1294년(충렬왕 20) 과거에 급제하여 안남부서기(安南府書記)에 임명되었다. [관련사료](#) 이후 이조년은 진주목사록(晉州牧司錄), 강릉부전첨(江陵府典籤)을 역임 후 예빈내급사(禮賓內給事)에 임명되며 본격적으로 중앙 정계에 발을 내딛게 된다. [관련사료](#)

고려 후기에는 이곡(李穀)이나 이제현(李齊賢)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 향리 또는 한미한 하급관원의 자제가 과거 급제 이후 중앙 유력 가문과 통혼하며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조년의 삶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조년이 학문에 정진하던 시기 경산부사(京山府使)로 임관하였던 정윤의(鄭允宜)는 관할지 내에 거주하던 이조년의 학문적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그가 스무 살도 되기 전 자신의 딸과 혼인을 주선하였다. [관련사료](#) 정윤의는 그의 동생 정선(鄭僎, 鄭賢佐)과 더불어 원종대 과거에서 각각 제2인과 제1인이라는 높은 성적으로 급제하고 감찰대부(監察大夫),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등 청요직을 역임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관련사료](#) 이러한 삶의 궤적은 과거 급제 이후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국왕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았던 이조년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 3 충렬왕·충선왕 부자의 갈등과 이조년의 첫 시련

원간섭기 이후 고려에서는 국왕과 그 아들인 세자가 고려국왕의 지위를 놓고 갈등하는 양상이 반복되었다. 시작은 충렬왕과 충선왕(忠宣王) 부자로부터였다. 1290년대 중반 원 세조(世祖)와 계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의 연이은 죽음으로 원 황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충렬왕은 원 세조의 외손임과 동시에 계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의 남편으로서 원 황실 부마의 지위까지 획득한 세자에 비하여 열세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정세 속에, 그간 국정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부왕(父王)과 충돌해오던 세자, 곧 훗날의 충선왕은 계국대장공주의 죽음에 충렬왕의 비첩(婢妾)이었던 무비(無比)가 개입되어 있다는 핑계로 1297년(충렬왕 23) 무비를 비롯한 충렬왕의 측근들을 처단하며 순식간에 국정을 장악하였다. [관련사료](#) 결국 같은 해 10월 충렬왕은 국내·외의 전방위적 압박에 굴복하여 원 황실에 세자에게 양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게 된다. [관련사료](#)

원의 승인 하에 즉위한 충선왕은 그 동안 억눌려왔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과감한 개혁정치를 주도하였다. 젊고 혈통적으로도 완벽하였던 새 국왕은 넘치는 자신감 하에 원과 고려가 수십 년 간 합의해 온 정치 제도 및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급진성은 결국 기회를 엿보고 있던 충렬왕 측근들에게 좋은 빌미가 되었다. 즉위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충선왕은 아버지 충렬왕에게 왕위를 돌려주고 원의 수도로 소환된다. 표면상 충선왕의 퇴위는 계국대장공주와의 불화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고려-원 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충렬왕 측근들과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관련사료](#)

충렬왕 복위 이후 부자의 갈등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1301년(충렬왕 27)부터 충렬왕은 국왕의 먼 친척인 서흥후(瑞興侯) 왕전(王璉)과 계국대장공주를 재혼시켜 충선왕으로부터 원 황실 부마의 지위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관련사료](#) 1306년(충렬왕 32)에는 측근인 왕유소(王惟紹)·송방영(宋邦英) 등과 함께 원에 입조(入朝)하여 온갖 방법으로 황후 및 원 고위관원들과 충선왕의 사이를 이간질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고려 관원인 최유엄(崔有潁)·고세(高世)·김문연(金文衍) 등에 의해 무산되어, 최종적으로는 주모자인 왕유소가 원 중서성(中書省)에 감금되고 원에서 충렬왕에게 고려 귀국을 종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당시 계국대장공주는 내심 서흥후와의 재혼에 뜻을 두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에 분노한 공주는 김문연 등 재혼에 반대한 인물들을 처벌하고 왕유소를 고발하는 문서에 서명한 신하들이 충렬왕의 처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에 충렬왕을 모시고 원에 입조한 신하들 모두 계국대장공주와 충선왕 양측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으나 이조년(李兆年)은 꾀스스하게 충렬왕의 곁을 지켰다. 충렬왕과 왕유소의 행동에 동참하지도, 뜻을 같이하지도 않았으나, 신하 된 도리로 국왕의 곁을 지켜야만 한다고 결단한 이조년의 강직한 성품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관련사료](#)

이러한 선택의 결과 이조년은 정치적으로 불우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충렬왕의 곁을 끝까지 지킨 이조년은 충선왕에게 왕유소와 동급의 ‘반역자’·‘폐행(廢幸)’으로 낙인찍혔고, 충선왕이 복위한 이후 오랜 시간 고려 정계로 복귀하지 못하였다. 자신의 이익보다 절의를 좇아 행동하였으나 충렬왕과 충선왕을 이간하였다는 누명을 쓴 채 멀리 유배되었으며,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13년 동안 고향에 머물려야 했다. [관련사료](#)

### 4 국왕을 떨게 만든 강직함

고려 국왕의 부자간 비극은 세대를 거듭하여 반복되었다. 충선왕이 아들 충숙왕(忠肅王)에게 선양(禪讓)하면서 충숙왕을 견제하고자 조카 왕고(王鶯)를 심왕(瀋王) 및 고려세자로 책봉한 결과 충선왕 사후 고려에는 실질적으로 두 명의 왕이 존재하게 되었다. 고려의 관리들은 대의보다는 각자의 사소한 이익을 좇아 분열된 두 개의 핵을 중심으로 이합집산하였고, 이로써 혼란은 더욱 가중되어만 갔다. [관련사료](#)

단적인 예로 충숙왕의 친정(親政) 체제 구축 과정에서 축출된 권한공(權漢功)·채홍철(蔡洪哲) 등 충선왕 측근 세력은 심왕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원 황실에 충숙왕을 참소하고 심왕을 고려국왕으로 추대하였다. 조직적인 심왕파의 공격에 충숙왕은 1321년(충숙왕 8)부터 1325년(충숙왕 12)까지 원에 억류되었는데, 당시 고려에서는 국왕이 심왕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며 충숙왕의 측근들조차 충숙왕을 배반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자마자 비분강개하여 원에 달려가 충숙왕을 변호한 인물이 바로 이조년이다. 이조년은 단신으로 원에 들어가 왕의 무죄를 호소하는 글을 중서성에 올렸고, 그를 필두로

고려의 대간(臺諫)과 사한(史翰)들이 강력하게 반발한 덕분에 충숙왕은 국왕으로 고려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심왕파의 주도 하에 고려를 원의 한 행정(行省)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위기 국면이 다가올 때마다 이조년은 이제현과 같은 고려의 대신들과 뜻을 같이 하며 고려 왕조를 수호하는 입장에 섰다.

충숙왕에 대한 이조년의 충정은 충숙왕의 아들인 충혜왕에 대해서도 한결같았다. 충숙왕과 충혜왕 또한 고려-원 관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모순 속에서 부자간 권력 다툼을 벌여왔으나, 이조년은 충숙왕과 충혜왕 모두를 보좌하며 고려 왕실의 전통적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첫 번째 폐위 이후 충혜왕은 원에 머무르는 동안 온갖 악행과 불법적 행위로 유명세를 떨치며 원 조정의 실권자 바안(伯顔)과 부왕 충숙왕에게 '발피(撥皮, 망나니)'라는 치욕적인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원에서 충혜왕을 보필하던 이조년은 고려국왕으로 복위한 뒤 충혜왕이 선정(善政)을 펼칠 수 있도록 미리 가르치고 인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는 충혜왕의 눈 밖에 날 것을 각오하고, 종종 유학자의 입장에서 성군(聖君)의 덕목을 설파하였으며 간악한 신하들을 멀리할 것을 엄숙하게 직언하였다. 이에 충혜왕은 담을 넘어 도망갈 만큼 이조년의 훈계를 견디지 못했다고 전해지지만, [관련사료](#) 이조년의 진심을 알았기에 충혜왕은 그를 박대하거나 내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충숙왕 사후 고려국왕으로 복위한 충혜왕은 1340년(충혜왕 후1) 이조년을 종2품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임명하였다. [관련사료](#) 그는 재위하는 동안 이조년의 간언을 듣고 화를 내면서도 이내 그에게 따뜻한 말로 사과를 건넸고, 이조년의 동생이 형을 욕할 때 기뻐하면서도 작위나 경제적 측면에서 이조년에 대한 대우를 부족함 없이 하는 등 애증의 모습을 보였다.

1341년(충혜왕 후2) 73세의 고령에 이른 이조년은 젊은 충혜왕의 혈기를 더 이상 꺾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퇴직을 결심하였다. 통상 고려시대 관리들은 70세까지 관직에 머문 것을 명예로 여겨 퇴직을 요청하였는데, 이조년은 그 시기를 한참 지난 터였다. 충혜왕은 이조년의 퇴직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듬해 조적(曹積)의 난 당시 이조년이 세운 공로를 인정하여 그를 성근익찬 경절공신(誠勤翊贊節功臣)으로 삼아 토지와 노비를 후하게 내려주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1343년(충혜왕 후4) 이조년은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다. [관련사료](#)

## 5 이조년의 후손들과 고려말 정국

이조년은 정윤의의 딸과 혼인하여 외동아들 이포(李褒)를 낳았고, 그 다음 세대에 이르러 총 7명의 손자를 두었다. 친가와 외가의 가풍을 이어 그의 손자들은 대체로 과거를 통해 고려 정계에 진출 후 대간·지공거(知貢舉) 등 문관으로서 최고의 명예직을 역임하였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인물로 이인복(李仁復), 이인임(李仁任), 이인민(李仁敏)을 들 수 있다.

이조년의 장손 이인복은 원 제과(制科)에 합격 후 마찬가지로 원 제과 출신이었던 고려말 명유(名儒) 이색(李穡)과 더불어 공민왕대 개혁 정국에 참여하며 고려의 문풍(文風)을 진작한 인물이다. [관련사료](#) 그는 공민왕 즉위 초 조일신(趙日新)의 난을 진압하며 왕실을 보필하였고, 원과 고려의 결고려운 관계가 있을 때마다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였으며, 공민왕 말년 목숨을 걸고 신돈(辛旽)의 전횡에 대하여 국왕에게 간언하였다. [관련사료](#)

이인복의 동생 이인민 또한 과거로 입사한 후 동지공거(同知貢舉), 대제학(大提學) 등을 역임하며 고려 유학계에서 중심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인민은 1383년(우왕 9) 주관한 과거에서 훗날 조선 태종(太宗)이 되는 이방원(李芳遠)을 선발함으로써 그와 좌주-문생의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관련사료](#)

이조년의 손자들 가운데 고려말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그은 인물은 바로 이인임이다. 이인임은 공민왕 사후 우왕(禡王)을 즉위시키고 고려 정계를 좌지우지한 권신(權臣)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바로 이 점 때문에 조선시대에 간신이라는 평을 받았지만 고려말 정계에서 그가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공민왕대 문음(門蔭)으로 입사한 이인임은 주로 대간이나 문한관(文翰官)을 역임한 형제들과 달리 변경의 군진(軍陣)을 오고가며 실무 능력과 정치적 역량을 인정받아 공민왕 말년 상당한 지위에 올랐던 것으로 이해된다. [관련사료](#) 공민왕이 시해된 직후 원에서 심왕 왕고의 손자를 차기 고려국왕에 임명하여 고려로 보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인임은 백관을 통솔하여 출생에 대한 의혹이 남아있던 우왕의 즉위를 성사시킨 뒤 원으로부터 새 왕에 대한 공인까지 받아내었다. 이후 혈통상 약점을 안고 있고 기반 세력 또한 미약하였던 우왕은 전적으로 이인임에 의존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고려말 국정에서 이인임과 그 가문이 미친 영향력은 이처럼 실로 막대하였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이조년과 그 가문의 역사는 고려말 정치·사회 구조의 한 단면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방 향리의 자제에 불과하였던 이조년이 고려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대신으로 성장해나가고 그 손자대에 이르러 고려국왕의 폐립을 비롯한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할 만큼 막강한 가문으로 성장

해나갔던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후대의 역사가들은 원간섭기 이후 고려 지배층의 개방성과 유동성이 상당히 증대되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나아가 고려말 신구 정치세력이 반목하고 연합하는 다채로운 면모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